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설 은 정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부산 및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의 4~6학년 남·여 아동 347명이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문정(2003)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진(2010)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Cronbach의 α ,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상관관계 분석, 동시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아동의 성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1%였다.

주요어 : 양육행동, 다문화 수용성, 아동의 성

1)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 obchung@kore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를 지구촌이라 부를 만큼 서로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고 다양한 문화와 생활 형태를 보이는 가족체계가 생겨났다. 법무부 출입국 사무국(2011)이 발표한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체류외국인(장·단기, 미등록체류자 포함)은 약 126만 명으로 2009년 116만 명 대비 8.0% 증가하였다. 이 중 결혼이민자 수는 141,654명으로 2009년 125,087명 대비 13.2% 증가하였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취학 학생 수는 2005년 6,121명에서 2010년 30,040명으로 5년 사이 5배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2만 3천여 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도 점점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진입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중 일반가정 아동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 및 교육실태 관련 국내연구(설동훈 외, 2005; 전경숙, 정기선, 이지혜, 2007)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당하는 따돌림의 원인은 주로 일반가정 아동들이 보이는 차별과 편견에 있다.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된 부정적 경험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자신감 결여, 폐쇄적 대인관계 형성,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적응 현상을 초래한다(오성배, 2007). 또한,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싶게 만들거나, 실제 학업을 중단하게 하고(원희목, 2008), 나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정체감 형성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홍정미, 2009).

지금까지 다문화에 대한 국내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실태를 살펴보거나(오성배, 2007; 전경숙,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양순미, 2007; 이영주, 2007)으로 연구의 초점이 주로 다문화가정 아동에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보이는 문제는 이들 자신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일반가정 아동들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가지는 차별 및 편견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같이 생활하는 일반가정 아동들의 태도에 있다. 따라서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수용하는 태도인 다문화 수용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문화가정에만 한정된 다문화 연구에서 벗어나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 수용성 연구에서 아동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동기 동안 경험하는 또래들과의 관계는 아동이 자아를 형성하고 인간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며(장인협, 오정수, 2003), 무엇보다 이 시기에 형성된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태도가 청년기, 성인기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Ellison & Powers, 1994). 그러나 국내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태도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서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문화 수용성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 인식(오진숙, 2009; 이혜진, 장인실, 2009; 천수임, 2010; 하경애, 2010), 다양성에 대한 태도(유종렬, 1997; 이정우, 2008), 사회적 거리감(윤인성, 2011), 인종 편견(고아라, 2005)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국내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은 그동안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합의된 척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앞서 밝힌 연구들의 경우 각기 종속변인의 구성영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만을 측정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합의된 척도를 이용하여 일반가정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부모의 태도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다(Becker, 1964).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인성과 생활방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특히,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거부적 양육행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ears, 1965; Symonds, 1949). 예를 들어,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격발달이나 성격이 기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Ahlstrom & Havighurst, 1971; Chan, 1981; Peterson, Becker, Shoemaker, Luria, & Hellmer, 1961; Rohner, 1975; Rohner & Nielson, 1978; Schulman, Shoemaker, & Moelis, 1962). 한

편, 사회적 반영(social reflection)이론에 따르면 아동이 가지는 편견적인 태도는 부모의 태도와 가치를 반영한다고 한다(Nesdale, 1999). 이는 인종집단에 대한 편견 및 태도에 있어 부모와 자녀 간 상관을 보고한 연구결과(Carlson & Iovini, 1985; Hughes & Johnson, 2001; Mosher & Scodel, 1960; Sinclair, Dunn, & Lowery, 2005)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편견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벌적이고 지배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편견적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민경환, 1989; 양계민, 2009). 이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향상되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가정 부모의 양육행동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을 고려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 수용성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혜진과 장인실(2009)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초등학교의 다문화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유종렬, 1997)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형, 민주형, 맹종형으로 나누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상관계수를 살펴본 윤인성(201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에서는 민주형 양육태도만이 사회적 거리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에서 권위형 양육태도만이 아동의 사회적 거리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살펴보거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의 변인으로 간주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분리하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인으로 나누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모 자신이 보고한 양육행동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행동이다. Combs와 Snygg(1959)에 의하면 아동은 주변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가 의도한 양육행동과 자녀가 지각한 양육행동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의 객관적 속성보다는 자녀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국내외 연구(박영애, 1995; Cecas & Schwalbe, 1986; 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를 수용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배경에는 아동의 연령, 다문화 접촉 경

험 및 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김미진, 2010; 노경란, 방희정, 2009; 유종렬, 1997; Doyle, Beaudet, & Abound, 1988; Perkins & Mebert, 2005) 및 다문화 접촉 경험(박윤경, 2007; 원은경, 2007; 이정우, 2008; Rothbart & John, 1993)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성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동의 성이 다문화 수용태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김미진, 2010; 오진숙, 2009; 이정우, 2008; 이혜진, 장인실, 2009; 하경애, 2010)가 있는가 하면, 아동의 성이 다문화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고아라, 2005; 윤인성, 2011; 천수임, 2010)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가 남아와 여아를 대하는 양육행동에서 그 차이가 보다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에 따른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성에 따른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성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려고 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연구하는 것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이는 다문화가정 연구의 초점을 다문화가정 아동에서 일반가정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부산 및 창원시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의 4~6학년 15개 학급의 남·여 아동 34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남아가 175명(50.4%), 여아가 172명(49.6%)이었다. 이들 중 4학년은 113명(32.6%), 5학년

은 120명(34.6%), 6학년은 14명(32.9%)이었다. 연구대상자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40세~44세(47.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5세~49세(22.5%), 35세~39세(14.4%), 50세~54세(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40세~44세(45.0%)가 가장 많았으며, 35세~39세(33.4%), 45세~49세(1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 직업의 경우 사무직(27.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직(15.0%), 생산 노동직(13.8%) 및 전문기술직(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가정주부(42.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직(17.0%), 전문기술직(15.9%), 사무직(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28.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25.4%), 대학원 이상 졸업(1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32.3%)이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26.8%), 대학원 이상 졸업(8.6%), 2년제 대학교 졸업(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응답은 중(78.7%), 상(17.9%), 하(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4~6학년은 아동 후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르면 이 시기의 아동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망수용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직 질문지 형식의 측정도구에 익숙하지 않아 연구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chaefer(1965)의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 척도(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CRPBI)를 수정하여 박영애(1995)가 개발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김문정(2003)이 초등학교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박영애(1995)는 Schaefer(1965)의 양육행동 척도(CRPBI)를 기본으로 Block(1965)의 자녀양육행동척도(Child Rearing Practice Report), Pumroy(1960)의 자녀양육행동척도(Maryland Parent Attitude Survey) 및 Slater와 Power(1987)의 양육행동 척도(Parenting Dimensions Inventory)를 참고하여 총 122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하위요인 구분 없이 주요인 분석에 의한 사교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과 각 하위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80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Schaefer(1965)의 두 차원인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를 기본 틀로 사용하되 애정·수용, 거부·적대, 통제 그리고 자유를 개별적인 차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세 요인을 추출한 것이다. 선정된 하위요인은 '온정·수용(40문항)', '허용·방임(28문항)', '거부·제재(12문항)'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김문정(2003)은 박영애(1995)의 아동용 양육행동척도의 문항을 하위요인별로 요인부하량

이 높은 10문항씩을 선정하고 이를 재요인 분석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총 30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에 의한 사교회전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모두에 대해 박영애(1995) 도구의 세 하위 영역이 확인되었다. 세 하위 영역은 '온정·수용(10문항)', '허용·방임(10문항)', '거부·제재(10문항)'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각각 10점~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별로 아동이 부모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하위요인에 따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89,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74,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87이었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하위요인에 따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90,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80,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88이었다.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에서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진(2010)의 아동용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미진(2010)이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척도의 문항들을 분석하여 90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이를 주요인 분석에 의한 사교회전을 통하여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15문항)', '다문화적 인식(6문항)', '다문화적 개방성

(8문항), ‘다문화적 공감(4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 총 33개의 문항을 선정한 것이다.

첫 번째 요인인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15문항)’은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적절하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일상생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행동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인 ‘다문화적 인식(6문항)’은 문화와 외모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친구로 사귀는 데 있어서도 국적이나 외모가 다르더라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인 ‘다문화적 개방성(8문항)’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고 나와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로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거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같은 한국인으로 이해하는 등의 개방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요인인 ‘다문화적 공감(4문항)’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입장, 생각, 행동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놀림을 받으면 같이 마음이 아프거나 정책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아동이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이 15점~60점, ‘다문화적 인식’이 6점~24점, ‘다문화적 개방성’이 8점~32점, ‘다문화적 공감’이 4점~1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

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94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이 .92, ‘다문화적 인식’이 .79, ‘다문화적 개방성’이 .71, ‘다문화적 공감’이 .73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는 2011년 8월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두 곳의 4~6학년 남·여 아동 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2개 초등학교 교사를 직접 찾아가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교사와 아동의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와 다문화수용성 척도에 대한 아동의 문항이해 정도와 절차상의 문제 여부, 소요시간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아동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아동이 질문지를 완성하는 데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점과 주의사항을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11년 9월 서울·부산 및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의 4~6학년 남·여 아동 3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5개 초등학교 교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접촉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설문지 응답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수업 중에 아동들이 직접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으며, 참여 아동과 협조 교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질문지 배부 당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387부의 질문지를 모두 회수(100%)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347부(89.66%)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여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변인 간 상관계수와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일반적 경향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전체평균 및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평균은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M=2.99$, $SD=.60$), 허용·방임적 양육행동($M=1.86$, $SD=.42$), 거부·제재적 양육행동($M=1.66$, $SD=.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요인별로 평균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M=3.14$, $SD=.60$), 허용·방임적 양육행동($M=1.74$, $SD=.45$), 거부·제재적 양육행동($M=1.69$, $SD=.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전체평균은 3.14($SD=.4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다문화적 인식($M=3.28$, $SD=.64$), 다문화적 공감($M=3.16$, $SD=.58$), 다문화적 개방성($M=3.08$, $SD=.48$),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M=3.04$, $SD=.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전체평균은 여아집단($M=3.23$,

표 1.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증 (*N*=347)

변인	하위요인	남(<i>n</i> =175)		여(<i>n</i> =172)		<i>df</i>	<i>t</i>
		<i>M</i>	<i>SD</i>	<i>M</i>	<i>SD</i>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2.93	.61	3.15	.53	345	-3.53**
	다문화적 인식	3.17	.63	3.40	.50	345	-3.79**
	다문화적 개방성	3.01	.48	3.14	.47	345	-2.60*
	다문화적 공감	3.07	.60	3.24	.55	345	2.75*
총점		3.05	.49	3.23	.43	345	-3.78**

p*<.05, *p*<.01.

SD=.43)이 남아집단(*M*=3.04, *SD*=.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아의 다문화 수용성이 남아의 다문화 수용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총점과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총점이 유의하게 높으며,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공감, 다문화적 개방성, 다문화적 관계형성 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N*=347)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총점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개방성	다문화적 공감	
아버지 양육행동	온정·수용	.25**	.21**	.12*	.27**	.25**
	허용·방임	-.18**	-.23**	-.30**	-.16**	-.25**
	거부·제재	-.13*	-.16**	-.20**	-.15**	-.19**
어머니 양육행동	온정·수용	.32**	.31**	.19**	.28**	.33**
	허용·방임	-.26**	-.27**	-.35**	-.25**	-.33**
	거부·제재	-.17**	-.20**	-.26**	-.11*	-.21**

p*<.05, *p*<.01.

표 2를 살펴보면, 아버지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은 다문화 수용성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으며($r=.25, p<.01$), 아버지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r=-.25, p<.01$)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r=-.19, p<.01$)는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총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r=.25, p<.01$), 다문화적 인식($r=.21, p<.01$), 다문화적 개방성($r=.12, p<.05$), 다문화적 공감($r=.2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r=-.18, p<.01$), 다문화적 인식($r=-.23, p<.01$), 다문화적 개방성($r=-.30, p<.01$), 다문화적 공감($r=-.16,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r=-.13, p<.05$), 다문화적 인식($r=-.16, p<.01$), 다문화적 개방성($r=-.20, p<.01$), 다문화적 공감($r=-.15,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으며($r=.33, p<.01$),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r=-.33, p<.01$)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r=-.21, p<.01$)는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총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

한 상관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r=.32, p<.01$), 다문화적 인식($r=.31, p<.01$), 다문화적 개방성($r=.19, p<.01$), 다문화적 공감($r=.28,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r=-.26, p<.01$), 다문화적 인식($r=-.27, p<.01$), 다문화적 개방성($r=-.35, p<.01$), 다문화적 공감($r=-.25,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r=-.17, p<.01$), 다문화적 인식($r=-.20, p<.01$), 다문화적 개방성($r=-.26, p<.01$), 다문화적 공감($r=-.11,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와 외모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입장과 행동을 잘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고,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친구로 지내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이고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와 외모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입장과 행동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이고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관

계에서 그들과 친구로 지내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검증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자료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의 공차한계의 값이 1에 근접하고 분산팽창계수 값이 10이하였으므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과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표준 다중회귀분석(Standard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7, 339)=14.16, p<.01$], 수정된 R^2 값은 .21이었다. 다시 말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변량의 21%가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β 값)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보다 잘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

표 3. 아동의 성,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표준 다중회귀분석 ($N=347$)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B</i>	β
다문화 수용성	상수	2.63	.25	
	아동의 성	.15	.05	.15*
	아버지의 온정·수용	.09	.06	.11
	아버지의 허용·방임	-.10	.07	-.09
	아버지의 거부·제재	.04	.06	.04
	어머니의 온정·수용	.18	.05	.23**
	어머니의 허용·방임	-.24	.07	-.23**
	어머니의 거부·제재	.00	.06	.00

* $p<.05$, ** $p<.01$.

$R^2=.23$, $R^2_{adj}=.21$; $F(7, 339)=14.16$, $p<.01$

아동의 성은 더미 코딩되었음(남자=0, 여자=1).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이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때, 아동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수 있음 의미한다.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각각의 하위요인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표준 다중회귀분석(Standard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표 4~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서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이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

339)=10.90, $p<.01$], 수정된 R^2 값은 .17이었다. 즉,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변량의 17%가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β)값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을 보다 잘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아동의 성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및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이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때, 아동이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이 높을 수 있음 의미한다.

표 5에서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

표 4. 아동의 성,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에 대한 표준 다중회귀분석 ($N=347$)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B	β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상수	2.00	.31	
	아동의 성	.18	.06	.15*
	아버지의 온정·수용	.14	.07	.15*
	아버지의 허용·방임	-.06	.09	-.05
	아버지의 거부·제재	.12	.08	.11
	어머니의 온정·수용	.22	.07	.23**
	어머니의 허용·방임	-.25	.09	-.19*
	어머니의 거부·제재	.00	.08	-.00

* $p<.05$, ** $p<.01$.

$R^2=.18$, $R^2_{adj}=.17$; $F(7, 339)=14.16$, $p<.01$

아동의 성은 더미 코딩되었음(남자=0, 여자=1).

표 5. 아동의 성,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표준 다중회귀분석 ($N=347$)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B</i>	β
다문화적 인식	상수	2.67	.31	
	아동의 성	.18	.06	.16*
	아버지의 온정·수용	.06	.07	.07
	아버지의 허용·방임	-.16	.09	-.11
	아버지의 거부·제재	.03	.08	.03
	어머니의 온정·수용	.23	.07	.24*
	어머니의 허용·방임	-.21	.09	-.16*
	어머니의 거부·제재	.01	.08	-.01

* $p<.05$, ** $p<.01$. $R^2=.19$, $R^2_{adj}=.17$; $F(7, 339)=10.98$, $p<.01$

아동의 성은 더미 코딩되었음(남자=0, 여자=1).

들이 아동의 다문화적 인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7, 339)=10.98$, $p<.01$], 수정된 R^2 값은 .17이었다. 즉, 아동의 다문화적 인식 변량의 17%가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β 값)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다문화적 인식을 보다 잘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이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때, 아동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인식이 높을 수 있음 의미한다.

표 6에서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

들이 아동의 다문화적 개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7, 339)=10.56$, $p<.01$], 수정된 R^2 값은 .16이었다. 즉, 아동의 다문화적 개방성 변량의 16%가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β 값)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다문화적 인식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개방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7에서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이 아동의 다문화적 공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7, 339)=9.44$, $p<.01$], 수정된 R^2 값은 .15였다. 즉 아동의 다문화적

표 6. 아동의 성,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다문화적 개방성에 대한 표준 다중회귀분석 ($N=347$)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B</i>	β
다문화적 개방성	상수	3.66	.26	
	아동의 성	.09	.05	.10
	아버지의 온정 · 수용	-.01	.06	-.01
	아버지의 허용 · 방임	-.12	.08	-.11
	아버지의 거부 · 제재	-.03	.07	-.04
	어머니의 온정 · 수용	.06	.06	.08
	어머니의 허용 · 방임	-.26	.07	-.24**
	어머니의 거부 · 제재	-.09	.06	-.11

* $p<.05$, ** $p<.01$. $R^2=.18$, $R^2_{adj}=.16$; $F(7, 339)=10.56$, $p<.01$

아동의 성은 더미 코딩되었음(남자=0, 여자=1).

표 7. 아동의 성,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다문화적 공감에 대한 표준 다중회귀분석 ($N=347$)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B</i>	β
다문화적 공감	상수	2.20	.32	
	아동의 성별	.13	.06	.11*
	아버지의 온정 · 수용	.16	.07	.16*
	아버지의 허용 · 방임	-.06	.09	-.04
	아버지의 거부 · 제재	.03	.08	.02
	어머니의 온정 · 수용	.20	.07	.21*
	어머니의 허용 · 방임	-.26	.09	-.20*
	어머니의 거부 · 제재	.10	.08	.09

* $p<.05$, ** $p<.01$. $R^2=.16$, $R^2_{adj}=.15$; $F(7, 339)=9.44$, $p<.01$

아동의 성별은 더미 코딩되었음(남자=0, 여자=1).

공감 변량의 16%가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β)값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 아버지의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온정 · 수용

및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적 공감을 보다 잘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이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때,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은 태도는 높게 지각하는 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총점과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 집단의 평균이 남학생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아동이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이 부모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하는 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성이 여자이고,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하는 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아동의 성이 여자이고,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하는 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개방성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아동의 성이 여자이고,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하는 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다문화 수용성 모든 하위요인에서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미진(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표면적으로 보이는 태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흑인에 대한 편견을 덜 보인다는 연구결과(노경란, 방희정, 2009) 및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지도 및 친밀도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오진숙, 2009; 이정우, 2008; 하경애, 2010)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이유는 Gilligan(1977)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Gilligan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감수성이나 배려,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발달시킨다(정옥분, 2004). 때문에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여학생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나 공감을 보다 잘 발달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Block(1983)에 의하면 부모는 남아에게는 자기 주장적인 행동을 격려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관계 증진적인 행동을 격려한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잘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학생이 가지는 배려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 특성은 여학생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수용하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을 높게 보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타인존중의식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민주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수용적 양육행동이 타인존중의식의 하위요인인 배려와 특히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박서식(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 자녀는 자신의 욕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 태

도는 자녀로 하여금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다. 긍정적 정서상태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Moore, Underwood, & Rosenhan 1973; Rosenhan, Underwood, & Moore, 1974)에 의하면 긍정적인 정서상태에 있는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아동이 다문화 아동을 수용하는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을 낮게 보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허용적 특성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김지신, 1996)와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준 없이 아동의 요구를 과도하게 들어주거나 아동에게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내버려 두기 쉽다(Baumrind, 1973). 그렇기 때문에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기 쉽다. 이러한 태도는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수용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부모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이라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낮아지는 것이라 판단된다.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을 낮게 보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가 통제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아동이 또래에게 공격적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김지신(1996)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가진 부모는 아동에 대한 불만과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을 자주 보인다. 부모의 이러한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Hurlock, 1974). 한편 임소연(2008)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타민족·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수준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타민족·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낮다. 따라서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아동의 타민족·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쳐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제재적일수록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도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동의 성이 여자이고,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하는 반면, 어머니의 허용·

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 성의 영향력을 확인한 선행연구결과(이정우, 2008; 이혜진, 장인실, 2009; 하경애, 2010)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초등학교의 다문화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진, 장인실, 2009)와 일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타인존중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박서식, 2003)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한편,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을 포함한 제 발달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Davies & Cummings, 1998; Sears, 1965; Symonds, 1949)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의도한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간에는 차이가 있다(Combs & Snygg, 1959)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아동이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태도를 실제보다 낮게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하위요인들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관계형성 능력에 있어서는 아동의 성,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및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이 여자이고,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하는 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인식에 있어서는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온정·수용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이 여자이고,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하는 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적 개방성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동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개방성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적 공감에 있어서는 아동의 성과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온정·수용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이 여자이고,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하는 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다문화적 공감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β)값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 전체 및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들에 있어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비해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가정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

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바깥에서 생계유지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담당해왔고,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가족성원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표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러한 역할분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 부모의 직업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아버지 중 80% 이상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바깥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가정주부 혹은 무직으로 가정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은 가정 내에서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표현적 역할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 두 곳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버지 변인도 어머니 변인 못지않게 아동의 사회성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이경희, 1993; 최경순, 1992)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공감에 있어서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이미정, 2006)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

는 능력으로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은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감정이입하는 능력이 높다. 다문화적 공감능력 또한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는 능력에 하나이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다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은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유능성과 지도력을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경순(199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으로서 유능성과 지도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적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지도력을 높이고, 이는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 중 행동적 요인에 속하는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의 평균 가운데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온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 어머니 변인 뿐 아니라 아버지 변인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살펴보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부산 및 창원시의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5개 초등학교의 초등학생 중에서 표집하여 연구결과를 국내 초등학생 전체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 후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령층을 다양화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면, 연령에 따른 발달적인 변화에 대한 자료 또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해서만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같은 보다 다양한 특성 및 다른 생태학적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해서만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과 부모가 지각한 양육행동 간의 차이에 따른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고아라 (2005). 수도권 초등학생의 인종 편견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 사학위 청구논문.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경란, 방희정 (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49-79.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박서식 (2003). 민주적인 양육방식, 자아존중의식 및 타인존중의식과 도덕성의 관련성. 춘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경 (2007). 다문화 접촉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초등 예비 교사들의 문화 다양성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3), 147-183.
- 법무부 (2011). 작년 한해 출입국자 사상 처음으로 4천만 명 돌파. 보도자료. 2011. 1. 16.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오성배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학회지, 12, 1-15.
- 오진숙 (2009).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은경 (2007).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일반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초등학생 고학년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희목 (2008). 다문화가정 자녀 70%, 고등학교 안다녀.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23, 255-262.
- 유종렬 (1997). 가족환경요인이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인성 (2011). 일반아동의 다문화가정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정 (2006).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

-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정우 (2008). 다양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태도. *한국사회교육연구학회*, 47(3), 297-320.
- 이혜진, 장인실 (2009). 초등학교의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정기 학술대회*, 236-256.
- 임소연 (2008). 자아존중감이 타민족·문화의 수용에 끼치는 영향: 동남아시아인 및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인협, 오정수 (200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학교 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전경숙, 정기선, 이지혜 (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 교육청.
- 정옥분 (2004). 전생애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천수임 (2010). 초등학교의 조선족 자녀에 대한 인식: 영등포구 D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하경애 (2010). 초등학교의 다문화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정미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hlstrom, W. M., & Havighurst. R. J. (1971). *400 Los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lock, J. H. (1965).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Carlson, J. M., & Iovini, J. (1985). The transmission of racial attitudes from fathers to sons: A study of Blacks and Whites. *Adolescence*, 20, 233-237.
- C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Chan, J. (1981). Correlates of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ertain psychological variables among adolescents in Hong Kong. In J. L. Binnie-Dawson (ED.), *Perspectives in Asian*

- cross-cultural psychology* (pp.117-131). Lisle, Netherlands: Swets and Zeitlinger.
- Combs, A. W., & Snygg, D. (1959).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ew York: Harper.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8). Exploring children's emotional security as a mediator of the link between marital relations and children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24-139.
- Doyle, A. B., Beaudet, J., & Abound, F. E. (1988). Developmental patterns in the flexibility of children's ethnic attitud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3-18.
- Ellison, C. G., & Powers, D. A. (1994). The contact hypothesis and racial attitudes among Black Americans. *Social Science Quarterly*, 75, 385-400.
- Gilligan, C. (1997).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s of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4), 481-517.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33-350.
- Hughes, D., & Johnson, D. (2001). Correlates in children's experiences of parent's racial socialization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981-955.
- Hurlock, E. B. (1974). *Child psychology*. (6th ed). New York: Mc Graw-Hill.
- Moore, G. S., Underwood, B., & Rosenhan, D. L. (1973). Affect and altruism. *Developmental Psychology*, 8, 99-104.
- Mosher, D. L., & Scodel, A. (1960). Relationships between ethnocentrism of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31, 369-376.
- Nesdale, D. (1999). Social identity and ethnic prejudice in children. In P. Martin & W. Noble (Eds.), *Psychology and Society*(pp. 92-110). Brisbane: Australian Academic Press.
- Perkins, D. M., & Mebert, C. J. (2005). Effica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 domain-specific approa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97-512.
- Peterson, D. R., Beker, W. C., Shoemaker, D. J. Luria, Z., & Hellmer, L. A. (1961). Child behavior problems and parental attitudes. *Child Development*. 32, 151-162.
- Pumroy, D. K. (1960). *Revised preliminary manual for the Maryland Parent Attitude Surve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ryland.
- Rohner, R. P. (1975). *They love me not: psychological effects of rejection: a worldwide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New Haven, CT: Human Relations Area Files.
- Rohner, R. P., & Nielson, C. C. (1978).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 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of research and theory*. New Haven CT: Human Relations Area Files.
- Rosenhan, D. L., Underwood, B., & Moore, B. (1974). Affect mediates self-gratification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46-552.

- Rothbart, M., & John, O. P. (1993). Intergroup relations and stereotype change: A social-cognitive analysis and some longitudinal findings. In P. M. Sniderman, P. E. Tetlock, & E. G. Carmines(Eds.), *Prejudice, politics, and the American dilemma*(pp.32-59).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d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chulman, R. E., Shoemaker, D. J., & Moelis, I. (1962). Laboratory measurement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6, 109-114.
 - Sears, R. R. (1965). *The learning theory of child development*. New Harper & Row Publisher.
 - Sinclair, S., Dunn, E., & Lowery, B.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acial attitudes and children's implicit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83-289.
 - Slater, M. A., & Power, T. G. (198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in single-parent families. In J.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pp. 197-228). Greenwich, CT: JAI.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2. 4. 6
수정원고접수 : 2012. 5. 14
최종게재결정 : 2012. 5. 31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Levels of Korean Children

Seol, Eun-Jung

Chung, Ock-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ulticultural acceptance levels of children as it is influenced by parenting behaviors. The participants were 347 children of 4th to 6th grades in four elementary schools in Seoul, Busan, and Changwon. Reports from the Parental Behavior Inventory (Kim, 2009) was used to assess parenting behaviors.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Kim, 2010) was used to assess the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n the part of the children tes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ronbach's alpha,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the child's gender. Parenting behaviors were related to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children tested. Specifically, parental warm-accepting behavio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child's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Parental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and rejective-restrictive behavior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child's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combination of the child's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child's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combination of the child's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s explained 21% of the variance in the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Specifically, the combination of a child's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s explained 17% of the variance in multicultural relations. The combination of the child's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s explained 17% of the variance in multicultural awareness. The combination of the child's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s explained 16% of the variance in multicultural openness. The combination of the child's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s explained 15% of the variance in multicultural empathy.

Key words : parenting behaviors, multicultural acceptance, children's gender